소 : 8층 회의실

3. 발표자 : 이홍식 고려대학교 교수

4. 참석자

I. 개요

1. 일시 : 2009. 3. 26 . (17:00~18:00)

2. 장

이홍식(고려대학교, 교수)
최창규(명지대학교, 교수)
박성일(KOTRA, 팀장)
박복영(KIEP, 연구위원)
김준동(KIEP, 선임연구위원)
현혜정(KIEP, 부연구위원)
김한성(KIEP, 부연구위원)
성한경(KIEP, 부연구위원)
김혁황(KIEP, 전문연구위원)
조미진(KIEP, 부연구위원)

4. 제 목

- It Matters Where You Go: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mployment Growth at Home

II. 주요 논의 사항

1) 발제내용

- 해외직접투자가 모국의 다국적기업의 고용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본고의 주제임.
 -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활동, 특히 중국으로의 진출에 따른 고용 감소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검증할 만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함.
 -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의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FDI 도착지에 따른 FDI의 고용 효과를 살펴 보았음.
- 투자의 고용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는 혼합된 형태를 보임.
 - Hanson et al. (2003), Desai, Foley and Hines (2009), Borgia (2005), Mankiw and Swagel (2006)은 미국 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은 오히려 국내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함.
 - 이에 반해 Bainard and Riker (1997)는 해외고용이 국내 고용을 대체할 수 있음을 입증함.
-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몇 가지 차별화되는 특성을 지님.
 -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미국, 유럽 등 선진국 기업들의 다른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 활동을 분석한 데 비해 본 연구는 emerging economy 기업의 활동에 따른 고용 효과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각각을 고려한 투자 대상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 보았음.
 - 한국과 같은 emerging 국가는 해외투자 경험 역사가 짧으므로 사실상 초기 투자 행태를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
- 연구 방법으로는 'Matched sampling techniques'를 활용함.
 - self-selection과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이 더딘 국가로 진출한 기업과 해외투자를 하지 않는 순수 국내 기업을 비교함.
 - 그러나 본고에서 사용한 방법은 문헌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내 기업과 해외투자 기업의 단순 비교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(ex ante) 국내 기업과 해외투자 기업이 모두 개도국에 진출한다고 가정하고 trajectory를 시뮬레이션 한 가상의 국내 기업과 해외투자기업의 고용효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함.
 - 이 방법은 difference-in-difference 추정방법과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써 지금까지는 주로 노동경제학에서 자주 활용되어 오던 방식을 국제 경제학에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 - 선진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외투자에 의한 고용효과를 살펴 봄.
- 연구 결과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됨.
 - 개발도상국으로 투자한 기업의 경우 단기간에 기업의 고용 성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.
 - 반면, 선진국으로 투자할 경우 고용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 오지 않음.
 - 사후적으로 기 설립된 다국적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을 분석해도 주요 결과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음.

2) 토론 내용

- Propensity score method를 사용하면서 해외투자기업과 비교할 만한 대비군 기업은 어떻게 찾아 내었는지 궁금함.
 - 기업 특성 (firm heterogeneity)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국적 기업과 여러 가지 성격이 유사한 기업을 일일이 찾아 내어 이들을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.
-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에 의한 해외투자 문화가 다른 국가와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벌 효과를 고려했는지?
 - 물론 재벌 변수를 control variable로 포함시켜 이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였음.
 - 재벌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 30대 재벌 리스트를 따랐음.
- 해외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산업에 따라 편차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?
 - 물론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여타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일어나는 고용효과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생각됨.
 - 그러나 데이터 확보의 한계로 산업군에 따라 분석을 할 경우 데이터 수가 매우 적어질 것이므로 분석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.